

“천관산 역사부터 통합의학까지”

‘10월 장흥’ 불거리 풍성



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장흥으로 내려와 회령포 결의 가진 역사적 장소이다.

15일에는 호남 5대 명산의 하나인 천관산에서 제24회 천관산 역사제가 개최된다.

천관산 정상 130만㎡ 능선 일대를 은빛으로 물들인 억새는 다도해의 풍경과 천관산 기암괴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이룬다.

가시거리가 좋은 날은 다도해의 시원한 풍경은 물론 멀리 제주도까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억새가 능선 전체에 고르고 풍성하게 피어, 보다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는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문을 연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함께 해 대한민국 통합의학 1번지, 장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현대의학 통합의학관 ▲한의학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통합의학관 ▲건강 100세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산업/장흥 특산물관이 운영된다.

김성 군수는 “불거리, 줄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10월의 정남진 장흥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봄과 마음을 힐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작된 10월, 장흥이 연이은 행사로 다양한 불거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회령포 문화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라는 의미를

13일부터 회령포 문화축제 · 제24회 천관산 역사축제

20~26일 7일 동안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오는 13일부터 15일 3일간 회진면에서는 2017 회령포 문화축제가 열린다.

담아 ‘회령포에서 시작된 열두척의 기적’을 주제 내세웠다.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

무안군,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군 단위 상위권

경영성과 인구동태 · 주민생활 등 항목 전남 최고점

무안군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 결과 경영성과와 부문에서 전국 군 단위 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지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목표로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

영성과의 3개 부문에 걸쳐 93개 세부지표 항목을 추출해 조사하고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무안군은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정, 환경안전 등 6개 분야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성과 부문에서 217.99점을 받아 전국 군 단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일반도로포장률, 예방접종

인원, 노인복지시설 수 대학진학률, 공유재산증감 등의 항목에서 타 지자체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동태, 주민생활 등의 항목은 전남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꼼꼼히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무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3개소 선정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등 3개 단체 참여

완도군은 2018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사업에 3곳이 선정되어 사업비 총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소안항 일운동기념관 무궁화동산 조성 △신지 가인리 마을숲 조성 △신지 신리 풍치숲 조성 등 3개소로 내년 부터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신지면 번영회, 가인리 새마을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 민선6기 대표 브랜드 시책 중 하나로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마을의 유희부지, 자투리 땅 등이 숲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 만남, 모임 등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한 숲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사후 관리에도 노력해 숲속의 완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에 소안 가하리 새마을회 및 미리리 새마을회, 생일면 청년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공직자 대상 ‘인구감소 해결’ 교육 실시

직원 400여명 참석 저출산 구조적 원인 되짚어



진도군이 지난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2017 찾아가는 공공기관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박홍진 강사를 초청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우리는 어

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으며, 직원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홍진 강사는 저출산이라는 암초에 걸린 대한민국(號)의 현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으며,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노동 현실과 가부장적인 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되짚었다.

또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가족’을 제시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기반으로 가시분담 문화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게 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절실히 실감하며, 인구 문제 해결은년부터 가족에서부터 출발하고 가족구성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며 “건강한 가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주 수요일은 야근하지 않고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 운영과 함께 ▲배우자 출산육아휴직제 ▲다자녀 출산자 가산점 부여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직장내 출산율 높이에 노력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오늘부터 신청...3.5톤 이상 최대 770만 원

여수시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2톤 이상 경유차로 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양이 허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이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여수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이며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 기후환경과(061-669-3811)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240대를 폐차했고, 추가 사업을 위해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 추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